

英才教育研究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1997, Vol. 7, No. 2, pp. 47~67

서울시 고교에서의 특수재능교육

조 석 희 / (한국교육개발원)

I. 특수재능교육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운영 현황

특수재능교육은 크게 국가와 개인의 두가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특수재능의 육성을 통하여 고도의 정보가치 창출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특수재능아들의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케 함으로써 그들의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기 위해 특수재능교육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과학, 외국어, 예술, 국악, 체육 등의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만 특수재능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 본 논문에서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특수재능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특정 영역의 잠재력이 뛰어난 교육대상자; 충분히 개별화된 도전적인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전문성을 갖춘 교원과 충분한 교원의 수; 학교급간의 교육의 연계성 확보 등의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설립·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학고, 국악고, 체육고는 국공립으로 설립되었고, 나머지 학교들은 사립으로 설립되었다. 이 학교들이 수용하는 학생정원은 영역별로 총합할 때, 과학 영역 1,080명, 체육 영역 360여명, 예술고등학교 4,300여명, 외국어 고등학교 5,200 여명 등으로 과학고와 체육고 학생수는 외국어와 예술 영역의 학생수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표-1>의 개교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 처럼 대부분의 특수재능 교육기관의 역사는 아직 짧다. 각 영역의 특목고마다 다른 역사를 갖고 있다. 외국어 고등학교들 중 일부는 외국어 산업기능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학교로서 '92년 전부터 존재하다가 특목고로 인가를 받았거나 '92년도에 특목고로 새로 설립·인가된 학교들이다. 예술고등학교들은 대체로 민간단체들이 예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을 해오다가 특목고로 인가를 받았다. 예술고들은 특목고로 인가를 받기 이전부터 그 영역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을 해오던 전통을 가지고 있어 특수재능 교육의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과거의 전통이 현재의 특목고 교육의 여러 측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과학 및 체육고등학교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들이다. 과학고등학교는 과거의 전통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도 특별히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영역에서의 특수재능교육에 관한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인가학급수, 학급 정원, 교원의 수를 통해서 개별화된 교육의 실시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표 1>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 현황

재능영역	학교명	공립/사립	개교연도	인가학급	학급당정원	교(강)사수
과학	서울과학고	공립	89	18	30	57
	한성과학고	공립	92	18	30	57
외국어	대원외고	사립	92	12	51	51 (12)
	한영외고	사립	92	8	52	48 (13)
	대일외고	사립	92	13	51	62 (3)
	명덕외고	사립	92	36	51	69 (8)
	서울외고	사립	92	30	52	61 (3)
	이화여외고	사립	92	6	51	38
예술	서울예고	사립	53	24	52	47 (110)
	선화예고	사립	77	24	52	45 (366)
	덕원예고	사립	92	15	52	31 (121)
	국악고	국립	72	9	52	30 (23)
	서울국악예고	사립	84	6	52	30 (23)
체육	서울체고	공립	71	9	53	45 (15)

인가학급수, 학급정원, 교원의 수는 재정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국립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립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교육재정은 영세하다. 외국어 고등학교와 예술 고등학교는 공납금 자율화(자율화이긴 하지만 무제한 자율화는 아님)로 인해서 일반학교보다는 더 많은 학비(분기당 약 40-48만원)를 학생들에게 받기는 하지만 국가보조는 전혀 없다. 사립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에서도 외국어 영역의 경우, 특수재능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기에는 인적자원·시설·설비의 구비가 매우 미흡한 경향을 보인다. 예술고등학교는 대학 교(강)사 수준의 교사에 의한 일대일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는 이 교사들을 모두 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강사들이 가르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특수재능을 키우고자 노력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여섯가지 요건을 교육목표, 신입생 선발방법,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교원, 대학 진학 및 대학교육과의 관계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교육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주로 문헌분석, 학교장 면담, 수업 참관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Ⅱ. 특수재능 교육기관의 교육실태, 문제점, 개선안

1. 교육목표

특수재능의 계발에 중점을 둔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은 공통적으로 학교의 교육목표를 특수재능의 계발과 사회발전에 공헌하고 봉사하는 인성의 함양의 두가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과학고등학교는 “탐구과정을 통하여 과학과 수학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문제해결과정을 통하여 과학 연구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신장”시키고, “창의적인 연구 활동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발전에 공헌하려는 태도를 가지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어 고등학교 역시 “기본 학력의 강화” “탁월한 외국어 구사 능력 계발”, “인성교육 중시” 등을 학교 교육목표로 내세우고 있다.¹⁾ 예술고등학교는 “예술 영재들의 조기 교육을 통해 자유 사랑 평화의 이념을 구현하고 민족이 지닌 우수한 예술적 재능을 신장 개발하여 문화국가로서의 힘을 기르기”²⁾ 또는 “끈기있는 창의적 노력으로 자기 발전을 이룩하여” “나라와 겨레에 봉사하는 참된 예술인을 육

1) 이화여자 외국어 고등학교 학교교육계획서

2) 서울예술고등학교 소개서

성”³⁾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국악 고등학교 중 국립국악고등학교는 궁중 음악 중심으로 서울 국악예술고등학교는 대중적인 민속음악 중심의 우리 음악의 전문가와 연주가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체육고등학교는 장차 우리 나라의 “체육 진흥에 앞장 설 수 있는 유능한 체육 분야의 지도자”와 “우수 선수로서의 기본 자질을 함양”할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2. 신입생 선발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각 특수재능 영역의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신입생으로 선발하기 위해 특차 전형 실시하되, 각 영역별 재능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평가하기 위한 전형 방법을 각 영역의 학교들이 협의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다.

과학고등학교는 과학에 특별한 잠재력과 재능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입생을 전형한다⁴⁾.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구분하여 특별전형에서 입학정원 180명 중 27명을 먼저 선발한 후, 일반전형을 실시한다.

특별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중학교 성적 석차 백분율리 상위 1%이내에 들면서 동시에 2·3 학년 2개년 동안 수학과학 과목의 과목별 학년 석차 백분율이 각각 상위 1%이내인 자와 교육부 주최 수학 과학 경시대회 입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중학교 2학년 수학 과학 성적 40%, 3학년 성적 60%를 반영하여 고득점자를 선출한다.

일반 전형은 서류전형, 면접, 구술로 이루어진다. 지원자격은 중학교 성적의 석차 백분율이 상위 3% 이내인 동시에 중학교 3 학년의 수학, 과학, 국어, 영어 과목의 과목별 학년 석차 백분율이 모두 상위 5% 이내인자와 서울 특별시 중학생 수학과학 경시대회 장려상 이상 입상자이다. 선발방법은 석차 연명부 환산점 50-75%, 교과 가중치 성적 8-45%, 면접 구술 성적 2.5-3.75%, 경시대회 가산점 1.25-2.5%를 기준으로 성적을 산출하여 고득점자를 선발한다. 교과가중치 배점 및 성적 산출은 수학 30%, 과학 30%, 국어 20%, 영어 20%로서 중학교 2학년 성적을 40% 반영하고 3학년 성적을 60% 반영한다.

검정고시 출신자, 귀국자 자녀, 조기 졸업 예정자의 내신성적은 별도로 산출하되, 수학 3, 과학 3, 국어 2, 영어 2의 비율로 반영한다. 검정고시 출신자는 서울시 교육청 주관비교 평가에 의한 과목별 석차백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귀국자 자녀는 3학년 성적만 있는 경우, 3학년성적의 석차백분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2,3학년의 성적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졸업예정자와 동일한 산출방법을

3) 덕원예술고등학교 교육계획서

4) 서울과학고등학교 1998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및 한성과학고등학교 1998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적용한다. 조기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2 개학년의 성적을 2,3 학년의 성적에 대입하여 산출한다. 지원지역은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 한한다.

외국어 고등학교는 중학교 성적 80%, 실기 20%로 전형한다. 지원자격은 중학교 3 학년 1 학기 영어 성적이 '우' 이상인 자이다.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성적 60%, 교과성적 가중치를 적용한 성적 20%, 영어 듣기 10%, 면접 10%를 반영한다. 교과성적은 영어·수학·국어·사회·과학에 가중치를 두되, 영어·수학·국어는 사회 과학 보다 2 배의 가중치를 둔다. 귀국자 자녀는 정원의 2%로서 영어 듣기와 면접 성적으로 선발한다. 모집 대상지역은 전국이다.

예술고등학교는 실기고사 성적에 많은 비중을 두어 신입생을 전형한다. 실기고사 성적 60%, 중학교 성적 40%를 반영하되, 중학교 성적 중 일부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예를 들면 50% 정도)를 기본점수로 주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만 석차백분율을 중심으로 산출한다. 실기고사는 국악전공자는 청음과 시창으로, 무용전공자는 한국무용을 실연하고 평가한다. 서울국악예고는 입학 실기고사 성적이 모집정원 상위 5% 이내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성적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방침을 적용함으로써 실기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특수 목적고등학교가 특수재능아를 발굴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 사교육비 증가, 과열과외 증가를 유발시킨다는 이유로 1996년도에는 과학고와 외국어고등학교의 학교별 선발고사가 폐지되어 서류전형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였다. 1997년에는 선발고사는 없지만 시교육청은 지필고사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과학고와 외국어 고등학교, 예술계 고등학교에 입시전형방침을 제시하여 면접 및 구술고사, 예술계의 실기고사를 통하여 선발하도록 하였다.

현재의 입학전형 방식에 의한 선발은 예술계 고등학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 고등학교 입학지원자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 반영하기 어렵다.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 고등학교의 입학생 선발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 (이군현, 1990; 조석희, 1996; 오영주, 1996)

과학고등학교가 과학특수재능아를 효율적으로 선별하기 위해서는 과학분야의 축적된 지식보다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과학자로서의 자질로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이는 과학적 탐구과정, 흥미정도, 집착력을 평가할 수 있는 캠프나 개별화된 프로젝트형 검사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들에게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적인 재능이 뛰어나고 과학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학생들이 대학입학에서의 불리에도 불구하고 진학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외국어 고등학교 역시 간단한 면접이나 영어듣기로 학생들의 능력을 충분히 평가하기는 어렵다.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전형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읽기와 쓰기 능력

은 지필검사의 형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능한 한 단순한 지필검사가 아니라 훨씬 더 길고 복잡한 검사를 함으로써 단순지식 암기위주의 과외가 별 효과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내용보다 과정을 중시하고 실험·실습을 통한 탐구학습 경험과 개인연구, 논문작성에 필요한 기초경험확립을 위하여 특별전형 방법이 연구·검토되어야 한다.
- ② 수학·과학·영어, 국어의 배점을 상향조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주거지에 관계없이 학생의 희망에 따라 고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 ④ 졸업생이 자연계 또는 인문사회계열에 응시하는 것이 문제시되어서는 안된다.
- ⑤ 미래지향적인 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병역 특례조치)이 제시되어야 한다.
- ⑥ 학교장의 추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 ⑦ 과학고등학교는 경시대회입상결과 반영률을 높이고, 외국어 고등학교는 경시대회 입상경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⑧ 추천의 준거가 되는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1학기의 학업성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로 제한하는 동시에 학교성적을 상위 5%로 하향 조정한다.
- ⑨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성적의 반영 비율을 낮추고 실기고사의 반영비율을 높인다.

3. 교육과정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일반학교와는 달리 전문교과를 두어 특수재능의 계발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학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1990학년도부터 과학계열 고등학교로 별도로 운영되며, 1997년도에는 제 6 차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어 일반계 고등학교의 자연계열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보통교과는 82-106 단위, 전문교과는 82-106 단위, 특별활동 16 단위로 교과총이수단위는 204-228단위이다. 보통교과는 기타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그 내용과 단위수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외국어 고등학교와 예술고등학교도 과학고등학교와 비슷한 편제를 갖고 있다. 이들 교육과정은 1996학년도부터 제 6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외국어계열 또는 예술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제 5 차 교육과정에 비하여 제 6 차 교육과정에서 전문교과 이수단위는 변함없지

<표 2> 과학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보 통 교 과		전 문 교 과	
윤리	윤리 (6)		
국어	국어 (10)	수학 II (10)	수학 III (4-8)
	문학 (8) 작문 (6)		
수학	공동수학 (8)	물리 II (4-8)	화학 II (4-8)
	수학 I (10)	생물 II (4-8)	지구과학 II (4-8)
사회	공동사회 (8)	컴퓨터 I (4-8)	컴퓨터 II (4-8)
	국사 (6)	물리실험 (4-8)	화학실험 (4-8)
	세계사 (6)	생물실험 (4-6)	지구과학 실험 (4-6)
체육	체육 I (8)	과학사 (2-4)	원서강독 (2-4)
교련	교련 (6)		
음악	음악 I (4)		
미술	미술 I (4)		
외국어	공동영어 (8)		
	영어 I (8)		
	영어 II (8)		
제2외국어 (독일어) (8)			
교양선택 () (8)			
이수단위	82-106	82-106	
이수단위 합계		204 -228	

만 보통교과 이수단위는 줄어들어 교과총이수단위수는 줄었다. 1997년 현재는 보통교과 82-106 단위, 전문교과 82-106 단위, 특별 및 단체활동 이수단위가 16 단위로서 교과총이수단위는 204-228 단위이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보통 교과를 106 단위, 전문교과를 82 단위로 정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교과중 필수과목은 38-48 단위이고, 선택과목은 30-44 단위로 교과총이수단위는 204단위를 택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국어 고등학교는 학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영어, 불어, 독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등의 전공과가 있다.

예술 고등 학교는 서양 음악, 미술, 무용 분야를 두고 있다. 각 분야 내에서도 세분화된 전공이 있어서 무용의 경우는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음악의 경우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관악기,

성악, 작곡 등의 전공 분야별로 입학생을 선발 교육한다. 미술분야의 경우는 전공과 관계없이 입학생을 선발하는 경향이 있다. 음악과의 경우, 시창, 청음, 음악 이론, 음악사, 합창 합주, 연주 등으로 50학점을 이수하고, 30학점은 전공과목의 실기 이론으로 이수한다. 미술과의 경우에는 소묘, 미술개론, 미술사, 인체 소묘, 색채학, 기술 묘사, 정밀 묘사, 크로키, 전공 등을 이수한다. 전공 25학점 정도, 전공외의 과목의 이수 학점은 약 55-60 학점 정도이다. 무용과의 경우에는 전공외에 부전공 과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 재학중 전공과 부전공의 60 여 학점, 기타 무용과년 40여 학점 등을 수강한다.

국악고등학교는 우리 음악의 전 영역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피리, 아쟁, 판소리, 민요 등)을 다루며, 서양음악의 기본 이론도 지도하여 우리 음악의 창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무용과도 한국 무용을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발레와 현대무용의 기본 요소를 지도하여 한국 무용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체육고등학교는 3년간 이수하여야 할 총 단위 수는 204 단위로서 체육 분야의 전문교과와 일반교과의 비율은 50%, 50% (주당 34시간 중 체육 필수 전문시간은 17시간)으로 운영한다. 전문교과 중 필수 과목은 육상, 체조, 수영, 구기, 무용, 체육과학 등이며, 선택과목은 육상, 체조, 수영, 복싱, 사격, 양궁, 유도, 태권도, 역도, 사이클, 배드민턴, 레슬링, 조정, 근대 3종 등이 있다.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은 매일 오전에는 학과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전공 종목별 훈련을 한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별적인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융통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동일 계열의 학교라면 모두 같은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단위수만 학교에 따라 약간 다를 뿐이다. 한 학교내에서도 능력 수준이나 관심이 다른 아이들이라도 똑같은 학습내용, 학습 방법과 같은 속도로 학습하고 있다. 전문선택교과라는 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없다. 학교측은 이를 교사의 수 부족, 교실의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획일성에 대한 개선방안

현실적으로 대학 입시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학입시 체제가 바뀌지 않는한 특목고는 학생들에게 입시 준비도 시키면서 동시에 고급 수준의 내용과 고차원적인 사고활동의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특수재능이는 학습속도가 빠르므로 교과 이수과정은 압축하여 속진시키면서 현장방문, 실습, 실험, 토의, 초청강연, 실기연습과 같은 방법을 병행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재능도 계발한다. 다른 방안으로는 대학입시와 관련된 교과를 3년간 계속적으로 지도하되 심화 수업형태를 채택하여 학생들리 단기 장기 프로젝트를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수행할 기회가 많도록 한다.

특수재능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상 갖추어야 하는 특징이라면 융통성이다. 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야 한다. 창의성의 발휘를 격려하고 요구하는 과목이 현 교육과정보다 더 많아야 한다. 교육 내용과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개인 연구’, ‘창작’, ‘작곡’ 등의 과목이 더 많아야 한다. 학생의 능력 수준과 필요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융통성있게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져야 한다. 일부 특수재능아들에게는 능력 발휘의 상한계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개인연구를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학과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학생의 창의성 발휘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 구체적인 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오영주, 1996).

① 교육과정 획일성에 대한 개선 방안

각 학생들의 제 조건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과정을 작성해야 한다. 각 학생들의 기록을 참조하여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의 수, 각 교과를 이수하는 방법 및 기간, 교과이수를 위한 교재 등에 세밀한 계획을 해야 한다.

② 교과간의 비연계성

창의성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개념이나 사물이나 환경을 창조하고 생산하기 위휘해서는 많은 교과의 지식이 필요로 하고 또한 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교과의 지식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따라서 통합교과적인 지식이 신장시키고 교과간을 상호 연결하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 프로젝트별 수업, 주제별 수업, 흥미집단별 수업을하여 교과를 초월한 교과-독립시간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이수교과 종류와 이수시기의 획일성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이나 이수해야하는 시기가 획일적이므로 자신의 장래 희망이나 적성과 능력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필수 교과의 수를 최소화하고 선택교과의 수를 확대하여 학생 개개인이 교과를 선택하는 시기와 교과를 선택하는 폭을 넓혀준다.

④ 교과단위의 이수시간의 획일성

실험/실습/실기 교과 이외의 모든 교과의 이수시간이 50분으로 획일적이다. 이를 교과의 내용과 과제의 유형에 따라 융통성을 갖고 조정하여 50분, 100분, 1일, 또는 하루에 2시간씩 2-5일간 연속적으로 시간을 배당한다. 시간표도 학기 당으로 고정시키지 말고 1주 단위, 2주 단위, 또는 월단위로 편성해야 한다.

⑤ 각 교과의 획일적인 이수기간

각 과목에 대한 단위 이수여부를 수시로 평가해 학기 도중이라도 이수여부가 인정되는 학생은

남은 학기 동안의 시간을 다른 교과를 위해 투여하게 한다.

⑥ 평가체제의 단순함/과정적 지식의 평가 부재

평가에 사용하는 산출물을 다양화하여 명제적인 지식뿐 아니라 문제해결과정이나 수행능력까지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문항과 평가방법을 다양화하여 과정적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⑦ 평가 결과 기록법의 단순함과 비효율성

각 학생들의 발전 상황을 점수화된 숫자로만 기록하지 말고 구체적인 자료로 보관한다.

4. 교수-학습방법

본인은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실시하는 학교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위원으로서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면담하고 수업을 관찰하기도 하였다. 이를 토대로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교수-학습 방법은 법적으로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특수목적 학교라도 재능 영역별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과학고등학교의 수업시간의 교수방법은 학생중심, 실험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학급당 인원이 30명인 소인수 집단이고 학생대 교사 비율이 일반 고교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학생중심의 토론, 탐구 수업이 가능하다. 과학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과학실험, 어학실습, 전산훈련 등이 가능한 시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2학년 시기에만 이런 시설과 방법들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세칭 일류대학입학율이 낮은 과학고등학교는 일류대학교 입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수-학습 방법에서 특수재능계발과는 거리가 먼 교수-학습 방법을 더욱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학생들의 지적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대학입학전형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아 적어도 2학년 말까지는 특수재능의 계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인연구를 하기도 한다. 필자가 참관한 2학기 후반의 3학년 교실에서는 수능 고사에 대비하기 위해 수능 문제집과 참고서로 수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과학고등학교는 학교의 실험, 도서관, 컴퓨터 시설 등을 24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숙사 시설까지 구비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과학고등학교를 수차례 방문했으나 방과후에 실험실이나 컴퓨터실에서 학생들의 모습을 본 적은 거의 없다. 학교측은 “대학 입시 준비 때문에” 방과후까지 실험실이나 컴퓨터실에서 탐구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 “개인연구” 과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에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교수-학습 방법 상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학급당 학생수가 보통 50여명으로 회화 수업만 25명씩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는 바, 특수재능을 계발하기에 적절한 개별화학습을 하기 어렵다. 외국어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간의 개인차는 일반고교에 재학하는 학생들간에 보이는 개인차 이상으로 현격하다. 일부 매우 뛰어난 학생들의 경우,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조차도 충분히 도전적이지 못하지만 이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는 거의 없다. 특수재능교육의 실적은 “경시대회 입상자” 목록으로 대신한다. 어떻게 지도해서 경시대회에 입상했는지를 말하는 학교는 없었다.

필자의 수업 참관에 의하면 대부분의 외국어고교에서 내국인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외국어로 수업하지 않는다. 일반 고등학교에서의 입시준비 수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영어 독해 수업에서, 교사는 50명을 대상으로 한 문장씩 읽어가면서 단어, 구,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고 학생들에게 그 의미를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다. 외국어 고교생 중에는 영어 소설을 쉽게 읽을 수 있는 학생이 있을 것이며,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개인차는 고려되지도, 격려되지도 않았다. 특수재능교육을 실시하는 외국어 고교라면 긴 글을 읽고 전체의 의미를 짧은 시간에 파악하는 활동이 더 적절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수 페이지에 달하는 긴 글을 읽고 저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 표현들은 어떤 가정을 깔고 있는지 등을 논의함으로써 고급 사고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영어 회화수업을 참관하였다. 회화 수업은 외국인 전임 또는 시간 강사들이 맡아서 한다. “Famous Persons”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학생들에게는 아무 준비된 자료 없이 칠판 가득 유명인사의 이름이 적혀있다. 외국인 강사(대사관 직원)가 25명의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비틀즈는 누구인가?”, “넬슨 만델라는 무엇으로 유명한가?” 등의 질문을 하지만 학생들은 단편적인 대답 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유명인사에 관한 잡지글들을 준비해서 선택하게 한 후, 각자가 선택한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소재가 풍부해져서, 학생들이 더 자신있고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고, 더불어 읽기 능력까지 신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가하면 다른 외국어 고교에서는 5-6 명의 학생들이 조별로 연극을 준비하였다. 팀별로 외국인 전임교사(전 대학 학장)가 일주일 전에 제시한 10 개 정도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각본을 쓰고, 연습하여, 다른 급우들 앞에서 직접 연기를 해 보이고, 교사는 학생들의 연기를 비디오로 촬영하였다. 학교간에 교수-학습의 질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술고등학교들은 학과 수업은 반별로 진행하지만 실기 수업은 다양한 집단 편성방법을 동원하여 실시한다. 대부분의 실기지도는 한명 또는 5-10명의 조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때로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개별화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부 예술 중학교까지 있는 재단에 속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 간의 개인차는 매우 다르다. 예술 중학

교까지 있는 재단에 속한 예고는 학생들의 실력이 학과 면에서나 실기면에서 매우 비슷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학생들의 개인차가 실기과목에서도 현저히 나타난다. 이런 학교에서는 실기과목을 일대일로 교육하더라도 학생들 간의 개인차를 충분히 고려한 교육을 하지는 못한다.

서울 국악예술학교의 경우는 학과공부는 반별로 진행하더라도 실기과목을 5-6명의 조별로 진행한다. 이때 조의 구분은 학생이 배울 내용(특정 민속예술과)에 의한 구분이며 학생들의 재능 수준에 의한 구분은 아니다. 따라서, 한 조에 속한 학생들의 수준은 매우 클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참여하는 교사의 자질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투자하는 시간 및 비용과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체육고등학교는 오전에는 학과 수업을 오후에는 체육 훈련을 받는다. 전문코치가 15개 종목별로 한명씩 외부강사로서 지도한다. 좋은 코치를 임용하는 데 필요한 재정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재의 문제점이다.

과학고 및 외국어 고등학교의 교수 - 학습방법의 획일성에 대한 개선 방안

특수재능교육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특수재능교육에 관한 교사 연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수재능교육이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의 학생수, 학급 수, 교사의 각종 부담의 감소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각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특수재능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특수재능교육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하는 특성으로는 '지식의 소비자'가 아닌 '지식의 생산자'를 기르는 데 목표를 두어 i) 학생 주도적이어야 하며, ii) 사고과정 또는 탐구기능을 자주 적용하고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iii) 학습 방법, 소재, 탐구주제, 문제해결의 방법과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개방적인 학습이 가능하여야 하며, iv) 여러 분야의 학문을 동시에 고려하는 간학문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어야 하며, v) 학생들의 흥미를 북돋우는 동시에 우수한 산출물을 만들어 내도록 격려하는 활동중심의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방안은 교원의 임용시 기준의 강화, 교원수의 증가, 연수 및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교원 임용의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공납금의 '자율화'를 실질적으로 자율화하려는 시교육청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교원연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본다. 외국어 고등학교는 학생들을 단기동안 해외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해외연수에 드는 비용에 비해서 그 효과는 의문시된다. 오히려 그 비용으로 수준높은 외국인 강사를

임용하여 교내 지도를 하고 강사료를 학부모가 직접 지불하는 방법도 활용해 봄직하다.

그 외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자율적인 학습 방법

독재적/ 권위주의적 교수방법을 벗어나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기 초에 어떤 유형의 과제를 몇 명이 함께, 언제까지, 어떤 산출물을 완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 스케줄을 알려주도록 한다.

② 첨단 정보와 교과간의 연계적 교수-학습 방법

첨단의 기술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선택하고 활용하는 전략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③ 도전적 학습방법

속진 그룹에서는 충분히 도전적인 학습을 제공할 수 없지만 심화 그룹에서는 충분히 도전적인 학습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속진보다는 심화형태의 수업을 운영하도록 한다.

④ 능동적 학습방법

수동적/피동적 학습 방법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제출, 발표, 해결하는 과제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서도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⑤ 탐구적인 학습방법

충분히 탐구할 시간을 주기 위해 각 교과와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 이수시간을 융통성있게 조절하여 50분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수업시간을 탈피한다.

⑥ 발표/표현/토론/논쟁 능력을 길러 주는 교수-학습 방법

수업시간에 학생자신과 타인의 생각, 의견, 사고, 느낌이나 사물이나 사건 등에 대해서 발표하게 하고, 10인 이내의 그룹을 형성하여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게 한다. 3-7인 정도로 그룹원을 구성하여 한가지 특정 주제에 대한 찬반론을 피게 한다.

⑦ 실행력/실증력을 길러주지 못하는 교수-학습 방법

사고를 통해서만 과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실제로 다양한 산출물을 생산하며 해결하게 해야 한다.

⑧ 과제집착력을 길러주는 교수-학습방법

과제물에 소요하는 시산이 짧은 과제부터 긴 과제까지 부여하되 해결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긴 장기 과제를 자주 준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적은 일지를 함께 제출하게 하는 방법도 좋다.

5. 교원

과학고등학교와 체육고등학교의 교원은 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법정 정원 범위내에서 교육청 인사관리 시행 규칙상 특례를 적용하여 임용한다. 서울시는 교원 선발시 특별 전보 요청에 의해 차출한다. 교원의 근무연한에 대해 특별한 제한은 없다. 전보 내신시 시로 전보가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과학고 교원의 대부분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다. 박사학위 소지자들도 상당수 있다. 과학고등학교는 교사: 학생의 비율이 1: 10 정도로 일반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매우 낮아 수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생 수는 적어도 모든 교과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수업에서 효율적인 다양한 집단 편성은 불가능하다. 두 학교를 합친다고 가정하여 36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08명의 교사가 있는 경우보다 180명을 대상으로 57명의 교사가 지도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비효율적이다.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외국어를 지도하는 내국인 교사들의 외국어 구사 능력 수준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전문성의 수준은 외국어 특수재능을 계발시키기에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 외국어 지도 교사의 외국어 구사 수준을 높이고 고급 사고력과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구사하는 능력을 한층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어 구사 능력과 교수-학습 방법에서 전문성을 보이는 교사들을 임용하려는 별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회화 교사들의 경우 외국어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교사들을 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술고등학교는 강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외부 강사를 임용하는 이유는 수준높은 실기지도를 받기 위해서로 이해된다. 강사들의 수준은 학교별로 차이가 크다. 대학교수가 강사의 주를 이루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학의 시간 강사들이 주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학교별로 한 강사가 4-5 시간을 지도하는 경우와 1-2 시간의 지도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학교의 강사 임용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외부강사가 지나치게 많을 때, 학교의 교육목표, 이념, 철학 등이 일관성있게 전달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⁵⁾.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경우, 대체로 준대학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특수재능아교육의 면모를 보일 수 있겠지만, 교사 임용의 여러가지 제한 때문에 대학 강사나 대학교수 수준의 교사를 임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제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교사임용에 있어서도 대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거의 한 기관인 것처럼 운영될 필요가 있다.

5) 덕원예술고등학교 교장과의 면담

우수교원의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① 전과목에 대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대학원 진학 교원에게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교사평정점을 산출할 때나 수당 등을 산출할 때 충분한 유인가를 주어야 한다.
- ③ 전문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대학진학 및 대학교육과의 연계성

각급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재능아교육은 각 영역에서의 특수재능의 발굴과 재능 개발, 그리고 그 영역에로의 진로 개척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대학 또는 그 이상의 고등교육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고등학교 수준에서의 특수재능교육은 대학 진학 및 진로지도에 의하여 그 성패가 가름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과학기술대학로 진학하는 경우와 일반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로 나뉜다. 과학고등학교의 수가 늘어나고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정원은 거의 동결되어 있으므로 과학고등학교의 진로지도는 그 양상을 달리하게 되었다.⁶⁾ 많은 과학고등학교에서 소위 과기대 (속진)반과 일반대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대반의 수업은 특수재능을 개발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거의 없다.

외국어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는 외국어를 다른 전공 학습의 수단으로 삼을 것인지, 목표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지 않거나,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대학 입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졸업생 중 동일계열 진학이 전체의 20-40%에 해당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어문학 전공이 아닌 다른 학과에 진학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외부로부터 대학입시준비학교라는 비난의 이유가 되었다.

예술계 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은 거의 전원이 예술계로 진학한다. 대학입학 전형에서 실기평가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대학 진학에서 매우 높은 진학률을 보인다. 일부 학생들은 국내대학으로 진학하지 않고 재학중 또는 졸업 후 외국으로 유학을 가기도 한다. 국내 대학에서는 예술적 재능을 충분히 개발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⁷⁾

체육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한국체육대학, 또는 일반 대학교의 체육과, 체육교육과, 또는 기업체의 운동부의 일원이 되며, 대학 진학률은 평균 80% 정도이다.

6) 1997학년도 현재 전국 과학고등학교 신입생수는 약 1700여명이고 과학기술대학의 1998학년도 입학정원은 약 600명이다.

7)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과의 면담내용

현재는 국내외 각종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 대해서는 원하는 대학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1994년도 대학 입학시험에서부터 특별전형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대학입학 전형에 대한 대학자율화정책 이후 실질적인 자율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해서 특목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 문제는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나아가 최근 1999학년도 대학신입생이 될 2학년 재학생들부터 대학입학 전형에서 수능비교내신제의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확실시 되어 특수목적 고등학교 2년생 이후 학생들의 대학 진학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등학교(비교내신제 적용을 신청한 서울예고는 제외) 졸업생들은 비교내신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자신의 실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 고등학교 2학년생 중 20-30%가 자퇴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한성과학고등학교 2학년생 180명 중 70여명이 자퇴하였다⁸⁾.

대학진학 관련 문제 개선방안

가장 중요한 문제는 특수재능에 관련된 교과목이 대학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실기능력은 뛰어나나 학과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희망하여도 대학입시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로문제는 대학진학 외에 다른 진로가 개방되어 있지 않은 데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전문적인 음악가, 미술가, 체육선수, 무용가, 과학자 등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별도로 존재하거나, 중고등학교 수준에서의 특수재능 교육만으로도 취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면 진로지도의 문제는 좀 더 완화될 수 있으리라 본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부는 ‘죽대없는 갈광질광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대학 입시 정책의 급격한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대학자율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대학 입학전형방법에 대해서 대학 자율화 정책을 편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자율화를 격려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 단계가 교육개혁의 과도기적 단계임을 감안하여 내신제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만이라도 대학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

② 국가 공통 절대기준 평가를 2000년도부터 시행계획인바, 이것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공통 절대기준 평가를 연구 개발하는 전문가들은 천정(ceiling)이 충분히 높아서 특수재능아의 능력수준을 충분히 반영해줄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8) 한성과학고등학교 교장과의 면담

③ 전반적으로 평가방법의 노하우가 발전되어 신뢰롭고 객관적일 뿐 아니라 타당한 평가가 가능해져야 한다.

④ 영재교육에 대한 확실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⑤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는 본교에서 배출되는 졸업생이 대단히 우수한 학생임을 대학에 알리고, 따라서 이런 학생을 뽑아갈 대학들이 찾아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⑥ 대학은 단과대별 경시대회와 같은 새로운 입학 전형 방법을 시도하여 특수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이 대학 입시준비를 별도로 하지 않고도 입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과의 연계성 확보 문제 개선방안

대학 진학에서의 문제 이상으로 대학진학 후 연계성의 확보가 시급한 형편이다. 대학교육에서 특수재능 교육의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고등학교에서의 특수재능교육은 헛수고인 셈이다. 외국어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의 실력이 대학교 3학년 전공생의 실력과 비슷하다고 한다⁹⁾. 과학고등학교 졸업생들 역시 일반 대학에 진학한 경우 특히 2년 정도는 별로 배우는 것 없이 대학교에 다닌다고 한다¹⁰⁾. 예술고등학교 졸업생들도 대학 진학후 1학기 지나면 외국 유학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¹¹⁾.

① 대학은 시험을 통한 이수인정제도외에 영재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더 본격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교과목 중에서 대학 수준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하고 어느 정도 수준(예: 75%) 이상의 성취를 보인 학생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③ 각 과의 가장 뛰어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학문적인 접근 방법을 적용한 교육방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7. 기타 문제점과 개선안

가. 특수재능아교육을 의무화하고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부재

정부의 특수재능아교육에 관한 정책적인 지원은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진 바, 1992년에 과학 특

9) 대일 외국어 고등학교 교장과의 면담

10) 김홍우 전 서울과학고등학교 교장과의 대화

11) 서울 예술고등학교 교장과의 대화

수재능아를 위한 학교를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규정하고 특별전형을 허용하는 법적 조항이 만들어졌다(이 논문에서는 현행 교육법이 곧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모든 법적 규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 조항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에 의하여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에 입학한 자를 영재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영재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는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행정의 많은 부분이 일반 학교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1994년 부터는 국제 및 국내의 예체능 뿐 아니라 수학, 문학, 과학, 외국어 분야에서 입상한 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이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몇가지 규정은 오히려 특수재능교육을 저해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관해 현행 교육법에는 “각 학교의 학과와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거해서 교육과정의 제정을 위하여 교육과정심의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단일교육과정을 제정함으로써, 매우 이질적인 학생들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그 결과로 특수재능을 신장시킬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다.

교원의 양성이나 충원에 관한 규정은 특수재능 분야의 교육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특수재능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교사를 충원시키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한다.

학생선발권에 대한 규정은 각급 학교에의 학생 선발 및 진급제도가 규정에 묶여 있어 특수재능학생 선발권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과열과외, 사교육비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각 학교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전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영재교육진흥법 제정(안)이 여야 공동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1997년 11월 12일에 교육분과에서 심의가 있었다. 이 (안)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일부를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전환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교육과정, 학생 선발 및 배치 등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물론 이 (안)대로 통과되리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나. 행·재정적 지원의 미흡

우리나라에서 특수재능교육에 관한 연구 개발이 1970년대부터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특수재능교육에 관한 정책수립이 지지부진한 것은 일반 시민의 인식과 가치관이 쉽사리 전환되지 않는 점과 함께 특수재능교육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이다. 특수재능교육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선진외국에서는 특수재능교육 전담 부서가 교육부와 교육청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 부서들은 특수재능아 판별, 특수재능아교육 프로그램의 선택, 설치, 교사의 연수 및 훈련에 관한 전반적인 일을 감독하고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과학기술과에서 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영역의 특수목적 고등학교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물론 다른 업무와

함께 특수재능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특수재능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여러가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어 재정적 지원도 대단히 미약하다. 국악고등학교와 체육고등학교는 국립고등학교로서 모두 국가에서 재정을 부담하여 재학생 전원에게 수업료를 면제해 줄 뿐 아니라 기숙사, 식비 등도 무료이다. 재정적 지원이 넉넉한 편이다. 시 교육청에서 과학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수 교육과정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과학특수재능아교육 활동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학생 1인당 연간 실험실습비 약 4만원 정도로 과학특수재능아 교육을 내실화 한다는 것은 대단히 벅찬 일이다.

외국어 고등학교와 예술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전혀 없어 매우 영세한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 영재교육진흥법 제정(안) 속에 행정전담부서의 설치와 영재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규정하였다.

Ⅲ. 맺으며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특수재능 교육 바깥의 문제도 많이 있다.

첫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이 대학입학 전형을 위한 준비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입학 전형방법이 시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 수학 과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하는 학생들이 출전일까지 대학 입학전형 준비용 참고서를 가지고 가서 공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수재능의 계발을 위한 학습과 노력이 바로 대학 입학 전형에 대비한 학습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대학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하였다는 비난을 받아야 하거나, 특수목적고에 입학하려는 특수재능아들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평가 방법이 크게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객관성과 신뢰도만을 중시하는 평가방법에서 타당성을 더 중시하는 평가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 시민과 학부모들의 인식과 가치관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학벌을 중시하는 풍토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풍토로 전환되어야 한다. 타고난 수준과 현재 나타내 보이는 성취 수준은 달라도 같은 내용과 방법의 교육을 받고, 같은 양과 수준의 몫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이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정한 의미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세계와 사회는 자본주의적 기반에서 심한 경쟁을 피할 수 없음에도 교육에서만은 평준화를 고집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세계의 치열한 국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체질이 되게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수목적고등학교들 역시 어린 아인슈타인이 불합격되고, 에디슨이 중퇴하는 학교 풍토와 교육 방법을 지양하여야 한다. 이는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재교육진흥법의 제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 에디슨과 아인슈타인, 모짜르트, 피카소, 이사도라 던킨을 알아보고 키워줄 수 있는 마음과 전문성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이제는 “한국이 낳은”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 길러낸” 세계적인 예술가, 운동선수, 과학자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수재능교육의 역사가 짧은 만큼 이 분야의 노하우가 부족한 것이 쉽사리 메꾸어지지 않을 것이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뛰어난 특수재능아가 많이 입학한 학교라는 것을 자랑하기 보다는 특수재능아로 길러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특수 재능아들이 튀고 싶어도 튀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낮은 천정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작업들을 부단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홍학순 (1995). 과학 영재를 창의적인 과학자로 키우기. 동아일보사 주최 과학 꿈나무 키우기 세미나 보고서. 서울: 동아일보사
- 오영주 (1996). 과학영재교육 활성화 방안: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안, 서울: 한성과학고등학교
- 이상희, 이군현, 조석희 (1997). 영재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군현 (1990). 과학 영재교육 체제 확립을 위한 방안 연구.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 조석희 외 (1996). 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조석희 (1996). 과학 영재교육 활성화 방안: 신입생 선발 방법 개선 방안, 서울: 한성과학고등학교

ABSTRACT

Seokhee Cho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Fourteen Special high schools for developing talents in Science, Foreign Languages, and Arts in Seoul Metropolitan city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educational objectives, Students screening system, curriculum, teaching-learning methods, teachers, and consistency with higher education.

Special high schools in talent area were more or less similar to each other in all the above aspects. However, special high schools in different talent areas were quite different in student screening, teaching-learning methods, teachers, and consistency with higher education. Public schools were more affluent than the private ones. Special high schools in Science, Arts and Sports were providing individualized, activity oriented, process-oriented teaching-learning methods, while the Foreign languages high schools exercised teacher-centered, grammar oriented, lecture-focused teaching methods more. Special high schools in arts and sports could have consistency with higher education because the university focuses on talents in the specified field rather than academic scores.

In conclusion, the schools have a great deal of rooms to improve in teaching-learning methods with which students can maximize their potential development. However, the special high schools were equipped with better learning environments than regular high schools in many aspects.